

봄철 구제역 등 악성질병 차단을 위한 양돈장 방역대책



김태웅 서기관
농림부 가축방역과

1. 서 론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 전북, 충남,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해외 악성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2003년 12월 국내 첫 발생 이후, 매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을 설정하여 강도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에게 작년말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코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발생 국가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축산분야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중국 감숙성, 2월에는 베트남 9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시 그 어느 때보다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을 맞이하여 양돈장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양돈장에서 구제역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효율적인 소독시설 운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본 론

가. 차단방역의 필요성

구제역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인 병원체, 감수성 숙주인 돼지 및 사육환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생된 질병은 접촉 또는 교미 등과 같은 직접전파 또는 분변, 뇨, 타액, 오염된 사료, 급수기 등과의 접촉과 같은 간접전파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다.

돼지 질병의 병원체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 등은 3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질병이 전파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원인체를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 양돈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출하·분뇨수거·사료 운반차량과 운전자 및 외부인에 대한 차단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것이 차단방역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양돈장을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 외부로부터의 차단방역

양돈장을 구제역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효율적인 소독시설 운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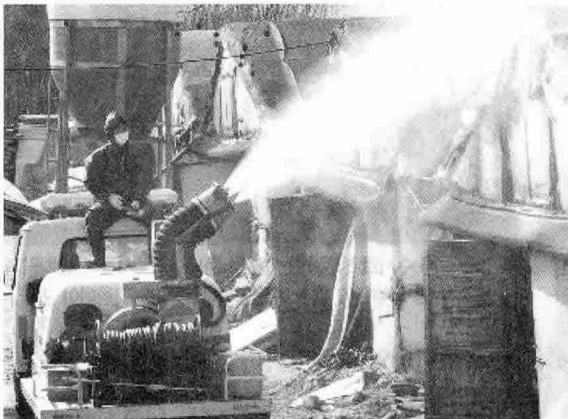
이를 위해 양돈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출하·분뇨수거·사료 운반차량과 운전자 및 외부인에 대한 차단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① 농장내 하나의 출입구를 통하여 사람·동물·차량이 출입, ②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방, ③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 후 출입, ④ 출입이 허용된 사람과 차량이 머물던 장소에 대한 소독 철저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할 경우, 돼지를 통한 병원체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위생상태가 우수한 농장에서 구입, ② 여러 농장의 돼지를 입식하지 말고, 한 농장의 돼지를 구입, ③ 입식한 돼지는 체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입식 하되, 일정기간 격리된 장소에 수용하여 순치기간을 거친 후 합사 등의 수칙을 엄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순치과정은 혹시 유입 될지 모르는 미지의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농장내 상재성 질병에 대하여 입식돈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식돈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농장내 차단방역

여러분들께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장내 차단방역에 대하여는 소홀할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 체계적인 내부 차단방역 조치는 평상시에는 농장에 상재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급속한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내부 차단방역 조치는 평상시에는 농장에 상재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급속한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내부차단 방역조치를 마련하여 평상시에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돈사시설의 배치, 돼지 및 분뇨의 이동경로, 관리자의 관리방법, 시설 및 관리도구의 청결 및 소독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농장에서 돈사시설의 재배치 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

우므로 기존의 돈사시설 및 관리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① 모돈사·분만사·자돈사·육성사·비육사별로 관리자를 구분하여 돈군 관리, ② 돈사별로 별도의 기구 사용, ③ 돈사 출입구에 소독조를 비치하여 소독 후 출입, ④ 돈사와 돈사내 시설, 관리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소독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든 돼지의 분변이나 콧물과 같은 분비물 속에는 수백만개의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묻어 있으며, 이러한 배설물에 오염된 시설이나 관리 도구를 통해 건강한 돼지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을 막고, 농장 내부에서 돼지간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청소와 소독을 통한 시설과 관리도구의 청결상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돼지는 사람과 달리 돈사 내에서 사육되므로 돈사내 환경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농장 내부에서 돼지간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와 소독을 통한 청결상태 유지가 요구된다.

3. 향후 과제

이상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은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듣고 읽었으며,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원칙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역은 100%가 아닌 99%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중에 단 한명이라도 노력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과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는 한 농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축산농가, 나아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2002년 이후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구제역이 재발하여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끝으로 정부에서도 예년과 같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한편,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 구제역 도상훈련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양돈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돈